

퇴직 전문인력 재능기부 '인생 2모작'

충청북도사회복지협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참여자 400여명 발대식

이시종 지사 "사회봉사 사명감 갖고 헌신" 당부

심의보 총사협 회장에 "참여확대 노력" 다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일 퇴직 전문인력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평가 및 발대식을 청주시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참여자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참여자 대표 선서 및 우수 사례 공모 시상, 효과성연구발표와 안중준장관(전 UN 평화유지군 사령관)의 교육 특이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는 퇴직 전문인력들이 충북발전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충북경제 전국 4% 달성에 전 도민이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들이 사회 분화 등 각 분야에서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11일 개최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서 참여자 대표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다. 지난해 충북사회복지신문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자원위원으로서 활동중인 김준길 주필은 이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봉사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창조적 노인인 사회봉사활동으로서 충북이 전국에서 선도적인 사업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이 사업 참가자 전원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대

상으로 효과성 연구조사를 발표한 김준환 교수(충청대학교)는 사업 취지에 맞게 전문가가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면서 사회적 보람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등 긍정적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 발표했다. 개선사항으로는 참여기관의 편중성 해소 및 활동시간과 활동일 수 증가, 운영기관 관리지원 등을 거론했다.

심의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참여자의 지역적 편중성 해소

및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관 모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참여자들의 성취감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인 만큼 중장년 은퇴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인생이모작 사업은 참여자 600여명, 참여기관 140여개소가 신청했으며, 앞으로 선정된 참여자의 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관련기사 6면

충북사회복지협 심의보 회장 취임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역 나눔문화 확산 앞장설 것



중심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서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성장을

심의보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61, 사진)가 사회복지법인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2월 25일(수)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정기총회에서 심의보

회장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의보 회장은 현재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장, 한국복지상담회 회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장, 충북평생교육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심의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별도신청 없이 자동전환

수급 가능자가 1회 말락후 재신청 절차 등 물라 혜택 못받는 사례 빈발 제도 고쳐 금융정보 조회 후 지자체서 자격여부 확인후 직접 지원키로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매년 수급률과 소득·재산·연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금액(선정기준액)이 오르는데 현재는 매년 신청을 해야지만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한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어르신은 선정기준이 바뀌어 따라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정보를 조회해 자동으로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첫 지급된 지난해 7월 410만 명에서 8월 421만 명, 9월 429만 명으로 매월 10만 명 안팎으로 가파르게 오르다 10월부터는 1만 명 늘어나는 등 정체됐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87만 원에서 6만 원(6.9%)인상한 93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증가폭이 다소 커졌지만 올 2월말 기준으로 436만 9,000명으로 소득 하위 70% 지급에는 20만 명이 모자랐다.

신청을 하지 않은 어르신이 여전히 많은 탓도 있지만 소득인정

금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상당했다. 지난해 신청 대비 탈락률은 30% 수준에 달했다.

도입 초기인 7-8월을 제외하고 통상 3-4만 명이 신청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달 1만 명 가까이 탈락한 셈이다. 작년 7월에는 신규 신청자가 45만 명에 달해 탈락자수도 10만 명을 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름에 따라 지난해 탈락한 어르신도 올해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별도로 또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해 기초연금에 신청하지 않은 분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거주불명등록자 9만 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주시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전과자 양산 '저작권침해' 1회 한정 '각하제도' 1년 연장된다

2016년 2월 29일 까지 제도 덕분에 고소건수 급감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에서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464건 정도에 머물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기준 있어야" | 인권위, 국토부장관에 권고 사고사례집 등 자료 배포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다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기인권위원회는 3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에 대한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 유 지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사례집 또는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담은 교육책자를 제작 배포할 것을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주행 중 휠체어의 고정장치가 풀리

거나 느슨하게 묶여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휠체어를 탄 채 뒤로 전도돼 부상당하거나, 차량 회전 또는 급정거 시 안전벨트를 착용했음에도 차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등의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인 1 2급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현재 주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차종과 차량의 제작년도, 구조 변경 정도 등에 따라 차량의 안전장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등이 상이하니, 차량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휠체어 앞 뒤 바퀴 각 2개를 차량 바퀴

면에 고정시키는 벨트식 고정장치와 휠체어 사용 탑승자를 위한 안전벨트, 휠체어 전면 또는 측면 방향에 설치된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휠체어를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관련 검사 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호주와 휠체어 고정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휠체어 유형별, 휠체어 제작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설비라며 안전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장애인인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게 돼 동등한 수준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권위는 휠체어가 일반 차량좌석과 같이 차량의 주행 및 충돌 시 안전하게 고정될 것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된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신체와 골반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벨트 등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전국의 척수장애인협회 시·도 협회장 선임

충북 신웅식 서울 김의중씨 등 12명 시 군 구지회장 접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는 9일 전국의 척수장애인협회 시·도 협회장을 선임해 발표했다.

선임자는 서울특별시협회 김의중, 대구광역시협회 김시중, 대전광역시협회 황영자, 광주광역시

협회 김공용, 경기도협회 김창호, 충청북도협회 신웅식, 충청남도협회 정병기, 전라북도협회 한승길, 전라남도협회 임종태, 경상북도협회 최영수, 경상남도협회 우길중,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양만

숙 등 총 12명이다. 임기는 다음달 7일부터 2017년 4월 6일까지 2년이다.

척수장애인협회는 본 협회는 향후 2년간 새로 선임된 시·도 협회장과 함께 심기일전해 전국 척수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는 9-17일 제6기 시 군 구지회장을 모집한다.

시 군 구지회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 이후 중앙회 최종승인을 받아 4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서 및 접수는 각 시·도 협회 홈페이지와 사무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 홈페이지(www.kscia.org)와 사무처 및 각 시·도 협회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소외된 우리 이웃 자립에
SSN 좋은이웃들

따뜻한 눈길과 작은 손길로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고계시면
1688-7934로
연락주세요!

좋은이웃을 찾는다
좋은이웃을 찾는다
좋은이웃을 찾는다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충북복지재단

'찾고 나누는 소중한 이웃! 365!두드림 선포'

청주시-청주복지재단 민관복지체계 구축 다짐

청주시와 청주복지재단이 2월 12일 365 두드림 선포식을 열고 안정적인 민관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읍면동 민관복지협의체 관계자들과 민간 네트워크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찾고 나누는 소중한 이웃! 365 두드림 은 읍면동의 지역 어르신과 고령한 민관 복지전달체계 기반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브랜드다.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선창으로 집어의 문화, 관심의 문화, 화합의 문화 등 외치면서 출중한 복지 실천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기반을 확대하고 소통, 세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먼저 민관복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기반을 확대하고 소통, 세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먼저 민관복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기반을 확대하고 소통, 세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먼저 민관복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2월 12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찾고 나누는 소중한 이웃! 365! 두드림 선포식'에서 이승훈 청주시장과 내빈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복지협의체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청주복지지원제도 통합(通) 발간, 읍면동 인적 안전망 구축 실천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민관복지협의체 우수 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등의 365 두드림 사업을 추진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기반을 확대하고 소통, 세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먼저 민관복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기반을 확대하고 소통, 세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먼저 민관복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복지협의체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청주복지지원제도 통합(通) 발간, 읍면동 인적 안전망 구축 실천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민관복지협의체 우수 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등의 365 두드림 사업을 추진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기반을 확대하고 소통, 세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먼저 민관복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기반을 확대하고 소통, 세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먼저 민관복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어르신을 위한 배움의 장을 열다

청주시 노인대학 운영

청주시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노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노인대학을 운영한다.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의 목적으로 소외계층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식 습득과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의 장이다.

개강은 3월부터이며 3월(화) 호환 남일노인대학(남일관)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노인

대학 운영 2곳, 읍 면 14곳 등 총 16곳 노인대학에 2,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청주시는 노인대학 운영에 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읍면도 노인대학(현도비)을 신규로 운영한다.

노인대학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레크레이션, 웃음 체조, 건강관리법 등의 신체활동부터 법률상식, 시사정보, 명사 초빙 특강, 나눔의 현장학습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



청주시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노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노인대학을 운영한다.

로그램 지식 발굴로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및 여

가활동에 위한 배움의 장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북 만들기

충북도 아동 여성 안전보호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개최

충북도는 아동 여성 안전보호 조치 등 지역연대 운영 시책 마련과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운영협의회를 3월 3일(화) 청주 흥덕1사 주주회 개최했다.

충북도는 이날 충청북도 아동 여성정책관실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동 및 여성 보호와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권익 관련법률, 교육,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촉했다.

이런 회의에서는 2015년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계획보고를

통하여 위원간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여성 안전프로그램 운영방안과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캠페인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충청북도는 매년 아동 청소년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심야에 귀가하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청주 일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사업

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범지역의 심야시간대 여성폭력 발생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의 효과에 따라 예산확보를 통하여 청주시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연대 위원장인 정정순 행정부지사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북 만들기 추진방안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며 지역연대 위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정구훈 한국사회복지협 상근부회장 부임

정구훈(鄭 勳 사진) 전 자광재단 이사장(사 진 69)이 3월 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한다. 정구훈 상근부회장은 서

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한국자활

봉사협의회 사무총장,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정구훈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충북도는 금년부터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사업을 3개 시(청주, 충주, 제천) 25,74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금년부터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사업을 3개 시(청주, 충주, 제천) 25,74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금년부터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사업을 3개 시(청주, 충주, 제천) 25,74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금년부터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사업을 3개 시(청주, 충주, 제천) 25,74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청주시, 일자리 2만4000개 만들기 시동

청주시가 올해 일자리 2만4천개 만들기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청주시의 일자리 목표 공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 부문에서 직접 일자리 6천797개, 간접 일자리 17,203개, 민간에서 18,700개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청주시가 올해 일자리 2만4천개 만들기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청주시의 일자리 목표 공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 부문에서 직접 일자리 6천797개, 간접 일자리 17,203개, 민간에서 18,700개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제도시행 준비 착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따라 맞춤형 복지급여 7월 1일 시행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는 3월부터 맞춤형 복지 급여 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TF는 보도복지국장을 주축으로 총괄반, 제도시행반, 홍보반의 3개 반으로 운영되며, 유관기관도 교육 및 LH(충북지역분부)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단으로 참여한다.

총괄반은 제도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자치분구 등의 정비를 담당하고, 제도시행반은 복지공무원 지정 배치 및 추가급여 전달부서 설치, 제도교육 및 대상자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되며, 홍보반은 잠재수급자와 저소득주민에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게 된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모든 급여

를 받을 수 있었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약간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자로서의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 발생이나 수급자가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보호되어 내에서 만족한다 하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상대적으로 빈곤 관점을 도입해 급여수준을 중위소득-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15년 기준 419만원)과 연동시켜 중위소득의 28% 미만이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40% 미만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43% 미만이면 추가급여 수급자로, 50% 미만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정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소득이 생기자라도 모든 혜택이 일시에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수급자는 2만여 명 정도 늘어난 6만 5천여 명으로, 예산은 3,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피콜 이용요금 부담 줄여

청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특별교통수단 최대한도요금을 결정

이용요금에 고시됨에 따라 청주 해피콜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청주시내권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최대한도요금 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통합시 출범 후 읍면지역에서 장거리 이동시 요금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시내권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최대한도요금 4,000원을 정해 교통약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10km) 2,000원, 10km~15km까지는 1km당 300원, 15km초과시 200원의 추가요금, 인접지역 요금 6,00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주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청주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5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관에 여성발전기금 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청주시민으로 한정한다. 시는 올해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지정 공모와 자율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정 공모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창업 활동지원 사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이다. 자율 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 가정 양립 문화 및 가족지원 확산 사업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여성권익과 복지 증진 사업 ▶기타 여성과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충주시 우체국 희망복지 선정

충주시(시장 이승훈)는 우체국공익재단에서 공모한 우체국 희망복지사업에 선정되어 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가정호호 행복지킴이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서충주우체국, 청주행복네트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례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게 된다.

특히 주민 접근성이 높은 우편배달원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사업으로 청주시는 약 4,000여 명의 어르신 이웃을 발굴해 소득 향상 생활 활주거 건강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심의보 편집위원장 유재웅 편집고문 김춘길 (361-8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pnews@chol.com 홈페이지: www.cwin.or.kr

2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T. 1688-1377)
 - (주)일리코리아, (주)오리온, 에스엔푸드, 롯데칠성(인삼, 대진, 청주, 충주), 웅진식품(이천, 덕평), CJ(진선, 수원, 덕평, 일죽) 대상 양치센터, 네슬레, 오리온(청주, 청원), 자명 진선센터, 농수산물유통, 대전중앙물류센터
 - 청주푸드마켓 (T. 218-7991)
 - 파리바게뜨, 농협하루마트, 백상푸드, 서문우동, 하나종합물류, 단진도넛, 민속떡집, 파리바게뜨, 빵두네트워, 햇식떡집, 현대아름, 청주유류, 새울, 민주유동, 고집빵집, 오븐소리, 행복사, 할머니손맛 빈천점, 동아오츠카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T. 267-1377)
 -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보식품, 실아슈어터, 풍은아침, (주)케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유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맛 청주대점
 - 청주주요급기초푸드뱅크 (T. 288-1377)
 - 궁전떡집, 금관일일마트, 따배오 베이커리, 락

- 이랑, 푸레쥘로 굿천뉴타운, 푸레쥘로 굿천점, 푸레쥘로 청주점, 레터블랜드, 정수희(후생사), (주)시사, 키베라, 파리바게뜨 분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인일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한솔제2점, 해신수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점
- 청주서행나눔기초푸드뱅크 (T. 266-1377)
 - (주)떡볶이점, (주)삼은에프메스, 가정대우 파리바게뜨, 경동수산, 도담, 푸레쥘로 청주비하계점, 비누아과자점, 비누구양, 백식음료, 비전상사, 풍은아침(성화점), 주식회사바람, 청풍영월 한우판매점, 파리바게뜨 북대점, 한국세이브(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청주제2점
 - 청주시푸드마켓 (T. 222-9171)
 -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 충주기초푸드뱅크 (T. 855-3000)
 - 고인들식품, 대하유동, 열린연충주교현점, 락보의후루, 푸리푸드 주저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동, 삼일상회, 서울유유치즈

- 주대리점, 유원유동, 육사청과, 은례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노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 충주시푸드마켓 (T. 856-1377)
 - 하이트진로(주) 충주영업소, 동보식품, 씨에스코리아, 한국세이브에프, 충주지사, 충주식품(오뚜기), 이종원, 롯데제과, 타르스&에이코, 남양유 유 충주대리점, (주)청풍은사람들, 농업회사법인(주)천보내츄얼푸드, 푸레쥘로 주저점
 - 제천시푸드마켓 (T. 645-5004)
 - 협명점, 청풍초청현우, 제천오뚜기, 선명농수산, 삼육제천단양대리점, 운유동, 롯데제과(주)푸른촌, (주)진생, (주)오뚜기
 - 제천시푸드마켓 (T. 647-1377)
 - (주)두리메이킹, 롯데제과 제천, 삼전상회
 - 청원기초푸드뱅크 (T. 218-1377)
 - (주)우리농, 신과제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청원새명 푸드뱅크 (T. 218-2605)
 - 그린하루스파자점, 낙원떡집, 민속떡집, 칠떡공방, 파리바게뜨오창중앙점, 파리바게뜨오수점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 서울유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옥천기초푸드뱅크 (T. 733-2500)
 - (주)리점, 푸레쥘로 옥천(미르점), 맥우, 새강방앗간, 파리바게뜨, 한솔팜스
 - 영동나눔기초푸드뱅크 (T. 744-4949)
 - (주)벨델유과공, 푸레쥘로
 - 증평기초푸드뱅크 (T. 836-6040)
 - 건국유유(진), 단비상사, 단진도넛, 따배오(농협점), 오뚜기, 우연물류, 일우, 케이하우스, 파리바게뜨 내수점
 - 진천군기초푸드뱅크 (T. 533-4911)
 - (주)서명, (주)세리부, (주)포럼푸드, 동원

- F&B, 푸레쥘로(진천성모병원점), 서울유유덕선대리점, (주)삼재점, 파리바게뜨 진천덕선점, 프린스(인삼), (주)삼재점, (주)삼재점, (주)삼재점
- 진천나눔기초푸드뱅크 (T. 536-0129)
 - (주)리리푸드, 이삭식품, 화평베이커리, 연사리, 비르가영민두빵방,
 - 괴산기초푸드뱅크 (T. 834-1377)
 - (주)물우연, 노정환, 노정경, 농업회사법인 괴산농산물 유한회사, 따배오 농협괴산점, 푸레쥘로 괴산점, 이영구, 장곡점, 진성점, 제충당약국, 주성마트, 주식회사 진미식품, 파리바게뜨 괴산점, 한국농악화점, 흥연점
 - 괴산군푸드마켓 (T. 834-1377)
 - 물우연, 일찌점 청정김치, 중앙식품, 생원대
 - 괴산나눔기초푸드뱅크 (T. 832-3197)
 -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기초푸드뱅크 (T. 873-2882)
 - (주)강식물, (주)비알코리아, (주)이기자연연, (주)물우연, 민풍기, 빈약국, 이 푸드, 한스델리, 삼성농산물나눔푸드뱅크 (T. 878-4312)
 - 삼야세프,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광주파리크리살양점
 - 단양기초푸드뱅크 (T. 422-1700)
 - 롯데칠성(안성점), 파리바게뜨, 광주파리크리살양점
 - 단양나눔기초푸드뱅크 (T. 422-1700)
 -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광주파리크리살양점

(주) 익성, 충북사회복지협에 1000만원 상당 흡음재 후원

주식회사 익성이 충북사회복지협 의회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흡음재를 후원하는 사랑의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2월 9일 오후 2시 충북종합사회복지협 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주식회사 익성 이병지 대표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박병준 수석부회장 및 흡음재 배분을 담당할 시 군 좋은이웃을 담당자, 푸드뱅크 담당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식회사 익성이 후원한 흡음재는 겨울에는 방한재로 사용 가능하고 여름에는 제습제의 역할을 하며 부작방범도 간편하여 주거환경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주식회사 익성은 2월 9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설립했다며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푸른어울림평생교육원 원장 현산 스님은 외관상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소외감을 경험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부장애인은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간질 등의 질환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등으로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에 따르면 261만1천126명이 등록돼 있다.

보은에 전국 첫 '자활작업장'

(사)충청북도내부장애연합회 다음달 중순 개원할 계획

보은은 내북면에 전국 최초의 내부장애인 자활작업장이 들어선다.

(사)충청북도내부장애연합회는 내부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통한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3년 옛 내북초 부지를 임대해 부설로 충청푸른어울림평생교육원을 만들어 작업장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증평군, 사회복지인권안전망 구축 앞장

증평군은 3월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증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홍성열 김현숙)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 간 사회복지인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 및 복지대상자를 위한 충북사회복지인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증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현숙) 증평군청(군수 홍성열) 과 산 경 합 서 (서장 임정주)가 민 관 경 사회복지인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복지공무원 및 복지대상자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인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증평군은 3월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증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홍성열 김현숙)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 간 사회복지인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

원화를 구성해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권관련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한제시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홍성열 군수는 각 기관의

단기 특화교육으로 청년층 취업창업 지원

충주시 청년일자리 운영자 모집

충주시가 공모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제조업체에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업이나 관광 레저 산업에 취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모를 통해 참신한 청년일자리사업 아이템과 운영자를 모집한다. 사업수행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기관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이달 23일까지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충주시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사업 참여자는 참신한

충북도내 첫 사회복지전문기자 탄생

충청일보 김규철 기자

충청일보는 지난 1일자로 김규철(사진) 사회부장을 기획특집부장 겸 사회복지전문기자로 발령했다. 김 기자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집중취재를 벌여왔으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당 유류보내기사업의 문제점, 복지시설 고위 간부의 횡포 지역

다. 특히 지난 2012년 한국교총대 일반대학원 노인복지학과에 입학, 2014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그동안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는 충북보건과학대 청소년문화복지학과와 한국교총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로 각각 활동했으며 올해부터는 충북보건과학대 청소년문화복지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자립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현숙)는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담당자 및 실무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2월 23일(월)에서 24일(화) 동안 충주 컨벤션리조트에서 개최하여 시설폐소청소년의 자립과정에 대한 이해, 진로탐색 및 진로코칭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타지역 폐소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사례발표 및 자립기술 프로그램 및 자립생활체형 매뉴얼 개발이라는 주제로 조별 본연의미를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설 간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사례 공유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자립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아동의 자립지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2월 26일(목)에는 폐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꿈, 잡아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로에 대한 꿈과 비전 설정을 돕기 위한 대학



충북아동복지협회가 2월 23, 24일 충주 컨벤션리조트에서 개최한 자립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가한 아동복지 담당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캠퍼스 투어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학 캠퍼스 투어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를 둘러보고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고려하여 직업 및 진학과 관련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사업은 폐소(예)정아동 자립지원사업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을 앞두고 있는 폐소(예)정아동들에게 개인별 욕구에 맞는 전문자격증 취득지원과 직업탐색 및 실질적 자립체형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단양군 '공직자 복지-Today' 운영

자원봉사활동 적극 나서

단양군이 올해도 봉사하기 좋은 날, 공직자 복지-Today를 기치로 내걸고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시책은 기존의 고착화된 봉사 의식에서 탈피해 공직자가 솔선해 원하는 봉사 유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반을 편성해 농촌 일손돕기, 도매 장판 봉사 등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맞춤형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직자 복지-Today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봉사하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며, 류한우 단양군수 등 대부분 공직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 한해 복지시설에 대한 말벗 배식봉사 청소 등은 물론 봉사자를 원하는 어려운 농가나 제도권 밖의 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봉사할 방침이다.



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올해도 봉사하기 좋은 날, 공직자 복지-Today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사과 수확 일손을 도운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또한 봉사 범위도 몇 가지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 활용해 공직자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보험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공식 업무협약 생명보험사

- ### 1. 사회복지법인 기부 프로세스 컨설팅

아름다운 사후기부 문화 정착 캠페인
사회복지법인 지속 발전 가능성 컨설팅
- ### 2. 알아야 면장하지!!

“지피지기 백전불태” - 내 보장 알아보기
“Bravo My Life!!” - 꼭 필요한 재무설계

3. 보험소비를 통한 자기 명의 기부

필요한 보장! 연금! 확인을 통한 보험 소비시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내 이름으로 기부(기관지정 가능)

사회복지협의회의 담당FC 서경희
(문의: 010-9566-4575)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인생이모작 우수사례>



대한어머니회
충청북도연합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결과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기초교육 현장에서 전광명비처럼 쫓고 있다. 전광명비가 쫓고 있는 동안 그들은 친구가 되고 멋진 단체가 된다. 과연 그들은 사회공헌 일자리에서 향기와 맛이 진한 제2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참여자들은 전문성과 경력을 저 나름대로 자질도 갖췄다고 자부하지만 과연 환경이나 생활수준에 부합되는 재능을 어떤

향기와 맛이 있는 제 2의 삶의 단체

게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확산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분과장들과 고심했다. 참여기관의 경영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 중략
몇 분의 교수님들과 공지에 간부로 재직했던 분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주요 안건은 참여자의 의식을 조직적으로 소속감을 갖고 봉사하는 의욕을 심어주는 과정이다. 자발적인 활동에 위대한 정신을 조율해 안내하고 경험을 회람이 교사라는 신념으로 봉사의 중요성을 심는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과를 만들었다.

--- 중략
고령인구의 급진전으로 고령사회는 빠르게 다가오지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앞으로 오랜기간 자신의 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 기초교육을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한 공헌활동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교육을 반복해서 요망된 전문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직무교육이 더욱 필요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과 초빙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 중략
분과별로는 쉽게 가까운 일지리를 잡아 성실한 활동을 하는 분과가 있는가 하면 1개월이 되도 구성은 됐지만 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 어려움을 겪는 합창분과는 활동 장소가 문제라서 빈번하게 옮겨 가는 불편도 있지만 그래도 만나면 흥이 나고 즐거워서 마음은 놓지 않는다고 외치는 참여자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되었다.

--- 중략
2015년 새해를 맞아 연간 운영위원회 연중계획에 따라 야심찬 전문교육연수의 기회도 격려했다. 전제하기로 결정했다. 주제 발표에 따른 포럼행사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더 많은 양질의 전문교육이 전문강사에 꼭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문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행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을 바라보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

여 본 우리 단체의 결론은 우리 충청북도 지역의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어느 시도보다 운영기관의 독특한 창의성에 입각한 특색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효율성을 분석하고 많은 전문가의 연구로 업무내용을 개선하고 관리하고 참여자 재능에 맞는 역할을 넓혀서 대인관계에 우선하기로 하였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전반적인 보람을 수요자와 함께 누리는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으로 거듭 발전시켜서 그 역할이 활성화 되게 하는데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40여명의 참여자가 더 우리들 동료 증되어 100세시대에 걸맞는 100인의 참여자가 사회공헌활동에 더 많은 유형에 경영전략을 비롯한 마케팅, 사회서비스, 문화예술서비스, 행정지원, 교육연구 분야에 인입되는 참여기회를 주어 삶의 질도 높이고 삶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1석 2조의 건강도 좋아져서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도 4% 달성, 향기와 맛을 겸한 1등 경제의 꿈도 이루어지게 긍정적으로 이룰 것임을 확신한다.



나눔카페 바리스타 활동(함이숙).



마을합창단 지휘자 활동(최재성).

작은 행복을 꿈꾸며



안용국(남, 52년생)

봉사를 하고 있는 아내로부터 퇴직자들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생겼더니 신청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다.

--- 중략
상당활동을 시작하면서 교육감과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 한 두가지 일에 몰입하는 취미생활을 통해 삶의 의욕과 성취감을 갖게 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 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산고 님 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복지관의 *선생님의 소개로 집을 방문하던 첫날 할머니는 첫 만남부터

선생님, 한자 좀 가르쳐 줘요 라고 하신다.

할머니, 왜 어려운 한자를 배우시려고 하세요?

응, 내 소원이 한자를 배워가지고 죽는 거여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한글도 겨우 아시는 분이 한자는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첫날은 한자로 이름과 주소 쓰기를 가르치고 돌아왔으나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막막하여 고민하던 중 마침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지도하기 위해 내가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노래로 배우는 재미있는 한자공부책이 생각나서 그것을 복사해 교재로 사용하기로 했다.

교재의 내용은 재미있는 동요를 부르면서 거기에 나오는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다.

--- 중략
할머니 방에는 그동안 공부하고 연습한 흔적이 벽에 그대로 남아있다.

할머니, 왜 벽에 붙이세요? 벽을 도배하겠네요 라고 하면

응, 벽에 붙이니까 공부하기 좋아, 누워서도 보고 있어버린 글자도 생각이 잘 나

할머니는 한자가 내 친구라고 하신다. 왜 한자가 할머니 친구냐고 물으면 나하고 매일 대화하고 지내니까 친구 맞잖아 하며 웃으신다.

--- 중략
가끔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들이 한자공부 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어머니 원수였다며 열심히 배우시라고 북돋움 한이를 사왔으며 자랑을 하셨다. 할머니를 보면 靑出於藍(靑출어람)이 생각난다. 이 말은 푸른 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것을 비유하는 말로 정말 선생보다 앞서가는 모습이 멋있고 감사할 뿐이다.

선생님, 나 선생님이 가르쳐 준 우(雨), 은(銀), 실(實), 수(手), 모(母) 글자가 헷갈려서 화장실에서도 공부했다 하며 자랑을 하셨다. 정말 기뻐하고 기가막힌 말씀에 고개가 숙여진다. 나도 할머니와 몇 달간의 만남을 통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고 할머니처럼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살 것을 다짐하게 된다.

나는 직업이 없는 백수(白手)가 아니라, 화려한 백수, 백수(白手)이다.

이름에 일어난 오늘도 작은 행복을 꿈꾸며 정해진 시간에 찾아갈 곳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며, 제2의 인생에 보람을 느낀다. 오늘도 만남의 얼굴을 그리며 집을 나서서 내 발걸음은 한 걸 거닐기만 하다. 지금까지 나를 믿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귀중한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회복지학 연구 및 조사 활동(김규민).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 활동.



생활영어사이트운영(경경호).

내 인생의 전환점



남순진(남, 55년생)

권면을 하신다. 남순진님 열정과 실력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특별히 지도해 드릴 테니 도전해 보라고 해서 용기를 갖고 시작한 공부가 ITQ 5과목 모두 합격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기쁨도 잠시동안 5중반의 나이에 여러 곳을 기웃거리보아도 어느 한 곳도 나이나 막은 사람을 컴퓨터로 일하는 곳에서는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일간지에서 자원봉사 할 컴퓨터강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전화를 드렸더니 직접 보고 결정하자고 하여 단숨에 찾아갔다.

--- 중략
그렇게 한달 두달 걸이온 학생들이 이제는 제법 문서를 만들고 전화번호부 만들고 어느 70대 학생은 배드민턴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다면서 늦게까지 컴퓨터 교실에 남아서

모집광고들 만들어 가지고 인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날 열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다음날 수업시간에 OO학생이 이렇게 잘 만드셨다고 크게 칭찬을 해 드렸습니다.

--- 중략
저희 컴퓨터 교실에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시기에 그에 맞게 사투리로 같이 쓰면서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풀려라는 말은 처음으로 접하는 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풀려라 책가방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은 공책으로 그래서 수업 중 세 회면을 열 때면 세 공책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글을 드래그 할 때는 까말게 라는 말을 사용하고 때로는 드래그를 질질 끌어라 하고 하면 한 비웃는 웃음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풀려 앞쪽은 택배포장 으로, 앞집 풀기는 포장 뜯기 또는 계산 깨기 로, 컨트롤을 누르고 부분선

박을 할 때는 드문드문 선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때로는 당부를 드리지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자제들과 대화를 할 때는 책가방이 아니고 풀려라고, 까말게 가 아니고 드래그라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토록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인생 이모작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해서 내게 약간의 수고까지지 나온다고 하니 그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휴퇴근에 기쁨이라도 낼 수 있으니 감사가 나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일할 자리가 없다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누구나 다 찾아보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나누어주다 보면 내 인생에 이모작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편집 활동(김순진).

마음이 따뜻한 사회, 희망이 넘치는 청주를 꿈꾸며



김준호(남, 50년생)

40여 년 전 청운(靑雲)의 꿈을 안고 국가와 민족 앞에 헌신하고자 공직을 시작했지만, 공직생활 33년의 세월 속에 만족스러운 일은 고사하고 후회스러운 일만 남은 것 같다.

부족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며 복지사각지대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014. 10. 말경 동네 주민으로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1년 전부터 우리 동네에 방 한 칸의 월세방

에서 부부와 딸이 함께 살면서 직장도 없이 패자를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였다.

--- 중략
업체 사장으로부터 2년여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나는 공직생활 중 법제(法制), 송무(訟務), 행정쟁송(行政爭訟) 등 법무행정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송무 업무 추진을 돕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작성하는 서류업무 및 국선변호선 선임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다. 그 결과 일을 착수한지 4개월만에 청주 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判決) 선고(宣告)를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판결이 더 집어 집행절차를 진행하라는 연락도 받았다.

--- 중략
70대 초선 초 노부부는 우리 가족에게도 꿈과 희망이 보인다고 말한다. 사회공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본다.

복지전단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이 화 정
충청종합사회복지센터장

2015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 20여 년간 사회복지 정책은 재정분권과 맞물려 주민 발자취 행정 서비스와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으며,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주적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속도와 구조조 단단할 때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증세는 충분한 시간여유조차 없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서 사회복지지출의 비효율성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논쟁과 사회구성원들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정부가 편성한 2015년 보건 복지 용 예산은 115조원으로 전체 예산 중 30.8%를 차지하고 있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로 2014년 총 예산 3조 7,588억원의 31.3%인 1조 1,771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

여졌다.
이처럼 복지재정지출 금액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들여다보면 적자재정으로 편성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35.7%로 증가할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어 복지재정의 증가가 재정건전성과는 거리가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도 악화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확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지출이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예산 중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하는 자체사업의 비중이 2008년 13.4%, 2010년 11.6%, 2011년 10.9%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체 자주 재원을 통해서 지역의 공공재로서 그 특성에 맞는 순수한 자치단체사업은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이양되기 시작한 사회복지 67개의 지방이양사업이 현재 64개로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는 3개항 제외된 64개 사업은 보통교부세에서 재원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에서 복지 이외의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지방재정에서 복지사업에 쓰이는 비율이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지방비 비율을 보면, 국고보조사업비 중 국고비율은 53.5%, 지방비 비율은 47%로 국고비율은 연평균 1.8%씩 감소하는 반면, 지방비 비율은 2.18%씩 증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발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즉, 전국 244개 지자체의 2013년 삼법살이를 알 수 있는 지난해 지방재정 운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재정 가운데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의 비중이 60%를 넘어섰으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마다 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공공재 주민에게 지원하는 지방본권의 본질적 이념이 훼손될 가능성도 우려의 수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지방세원의 편중을 야기하고, 이러한 재정적 불균형을 질적 양적 측면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주민의 조세 부담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육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지방세원의 편중을 야기하고, 이러한 재정적 불균형을 질적 양적 측면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주민의 조세 부담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의 11개 시 군 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결산에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산액의 38.68%로 평주시가 가장 높은 반면, 20%를 넘는 지역은 제천시(25.23%), 음성군(24.66%), 충주시(23.70%), 통합이천 청원군이 22.56%이었으며, 나머지 6개 시 군의 사회복지 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해 사회복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충북 내에서도 지역 간 사회복지 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복지재정 안에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배분 과정의 불평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무상보육과 급식에 대한 논쟁도 모두 복지재정 안에서 우선순위 문제

제로 갈등을 겪는 것처럼 대동맹부터 지방위원의 공약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 이 메일 패스권을 담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다.

부자집 자녀까지 급식을 공짜로 먹여야 하나냐 입장에서 시작된 논쟁은 재정의 한계를 내세워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중단토록 한 것이다. 부자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라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무상급식은 차별 없는 교육의 제 1원칙이며, 권리이며, 사회인으로서 어른들의 책무이다.

무상급식 중단 결정 을 한 경상남도에서 KBS장원방송총국의 여론조사 결과도 무상급식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57.3%중단해야 한다는 찬성이 37.8%였다.
지방자치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지방에 사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지방에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며,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려는 단체장이라면 경남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 은 때론 시일 안에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린 모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재정수요 증가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복지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점에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다.

저출산 관련 사회복지 재정 확대에 관한 한 독자적인 확충이라는

전략목표를 정점으로 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극복해야 한다 하면서 급식은 중단하는 이 현상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복지는 우리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때문에 재정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면 본래의 목적이 이행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2010년 성남시가 모라리움을 선언한 것을 기억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복지재정 때문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개인할 수 없는 단체장 중심의 재정운용과 포퓰리즘 급기야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약 패스를 한 결과는 아니었다는 지론도 있다.

복지재정 운용방향이 순증주의이고 복지지출을 소비적인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길 바란다. 그 기준이 결정됨에 있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와 지방의 자율적 재정 운영 확대를 위해 이상사법뿐만 아니라 재정과 권한의 이양도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를 통해 지방복지국가 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칼럼 Column

노인복지조례 제정 필요하다



김 경 일
충청종합사회복지센터장

년 1월, 충남(2015년 2월) 5곳이다.

최근에 본문 11개조와 부칙 2개조로 된 조례를 제정한 충청남도의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에서 충청남도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전에 도지사 노인복지에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아직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가 없다.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된 125건의 조례제정이나 개정안도 없고,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언론에 노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조례제정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호라 기초자치단체인 영동군과 괴산군에서는 수년전부터 관련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영동군은 2011년 1월에 노인복지증진지원조례를, 괴산군은 2014년 12월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와 충주시를 비롯한 시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련 조례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다.

충북도와 노인복지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떠 되었건 부산시의회는 이날 공청회를 가진 조례안을 20일쯤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입장을 조율한 상태이다.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노인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와 부산시의 일자리 현황조사는 물론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 때 노인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한 노인친화공원과 노인 전문문화시설 및 노인건강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것들을 비롯해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와 노인상담 확대 그리고 노인학대와 자살 예방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ITS)에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정, 운용하는 자치법규가 안내되고 있다.

이곳에 따르면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중심이나 기본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2009년 5월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강원도를 비롯해 인천(2010년 4월), 전북(2011년 12월), 제주(2014

년 1월) 충남(2015년 2월) 5곳이다.

최근에 본문 11개조와 부칙 2개조로 된 조례를 제정한 충청남도의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에서 충청남도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전에 도지사 노인복지에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아직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가 없다.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된 125건의 조례제정이나 개정안도 없고,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언론에 노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조례제정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호라 기초자치단체인 영동군과 괴산군에서는 수년전부터 관련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영동군은 2011년 1월에 노인복지증진지원조례를, 괴산군은 2014년 12월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와 충주시를 비롯한 시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련 조례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다.

충북도와 노인복지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떠 되었건 부산시의회는 이날 공청회를 가진 조례안을 20일쯤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입장을 조율한 상태이다.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노인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와 부산시의 일자리 현황조사는 물론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 때 노인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한 노인친화공원과 노인 전문문화시설 및 노인건강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것들을 비롯해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와 노인상담 확대 그리고 노인학대와 자살 예방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ITS)에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정, 운용하는 자치법규가 안내되고 있다.

이곳에 따르면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중심이나 기본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2009년 5월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강원도를 비롯해 인천(2010년 4월), 전북(2011년 12월), 제주(2014

정신건강



현 현 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화창한 하늘, 포근해진 햇살과 따스한 바람을 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 이라고 말할 만해 보이지만, 무언가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게 기본을 심층적으로 하는 저는 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봄이 되면 어김없이 웃을 잠깐 입이 늘 기가 한 차례 오기 때문이지요.

제가 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봄은 그래도 오네요. 피한다고 싫어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2015년은 영화 백부더뷰에서 이야기 한 바로 미래 세상입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거창한 끼니 대신 알약 하나만 먹으면 몇 시간은 배도 고프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요. 이런 꿈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의학에서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 이제는 얼마나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더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2015년이 되면서 저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했어. 나이에 알맞지 수가 바뀌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으로 왔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몸과 마음이 100세를 사는 세상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병원마다 노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고 있으며, 은행과 증권사에서도 행복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을 상품으로 만들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수록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로 수명만 담보된 채 주머니는 점점 얇아져 가고 있는 현실이 내심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도 역시 100세 시대의 가장 큰 밑천은 몸건강, 마음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인생 2교좌를 하고, 2교좌 수임으로 인생을 즐기려고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어 줘야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은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니,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누군가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 준비는 4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얼마나’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 2막을 멋지게 울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건강도 아직은 관망할 수 없이 무덤이 커져 40대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조금씩 물이 새는 줄 모르고 방심하다, 나중에는 건강을 수 없이 무덤이 커져 죽이 타지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누수 현상이 생기기 직전인 40대부터 신경 써서 내 몸과 마음을 구성구역을 점검하고, 크고 작은 리모넬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 남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소중한 몸 볼보겠다는,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정기검진에 소홀하면 안됩니다.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1%라고 해도, 내가 걸리면 100%입니다. 나에게 무슨 병이 있겠냐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큰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으로 평강한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한 경우가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계에 힘들어 시간 내기 어렵다고 미루다가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골을 보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 건강검진권을 자신에게 선물해보세요.

그리고 몸 뿐만 아니라 마음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몸의 건강은 챙기면서 정신의 건강은 소홀하게 여기거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도 많고 잘못된 이해도 많아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소한 기분이 따른 패닉이나 기타 다른 합병증으로 발전하여 생명을 잃어 가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되어 치료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한 작은 관심이 나를 더 풍요롭고 여유있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Justice 1st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제공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은 강희석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lovingusm@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홈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단신

충북아동복지협 권현숙 회장 선출

충북아동복지협회는 제28대 회장으로 권현숙(사진) 늘푸른아동원 원장이 연임되었다.

임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특히 충북아동복지시설의 아동자립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에 주력할 것이며, 아동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권익증진 향상 및 충북아동복지

시설의 발전이 기대된다.

또 권 회장은 한국아동복지협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전국 아동복지시설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여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복지협충북장애인복지관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진행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 및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중간관리자 리더십교육을 CCS충북방송의 후원으로 3월 20일(금)~21일(토) 1박2일간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웨스트오브가나안호텔에서 도내 12개 시 군 장애인복지관 중간관리자 5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최우수 시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중스님)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장애인복지관)에서 최우수등급(종합A) 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 3년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공단 주관 2014 전국장애인활동지원기관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관장 박중스님은 모든 분들이 행복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고 소감을 밝혔다.

“이웃과 정 나누며 훈훈한 설 보냈어요”

현대자동차 충북본부, 서부복지관에 선물 전달

2월 16일(월) 현대자동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안병주)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미영)에 방문하였다. 복지관 이용 아이들과 어르신(재가 어르신 포함)까지 200여명에게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할들과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며 훈훈함을 더했다.

공유 복지 플랫폼

보건복지부 2014년 복지교육조사

- 목적:가구 생활실태 및 복지교육 파악으로 보건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대상:표본추출된 약 18,000가구
-일정:-07.19(일)
-내용:가구일반사항,생활여건,주거,생활비 등
-방법:조사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직접면접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익위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

- 1) 신고대상
-부정수급: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 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보조금 선정 단계에서 지원 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 기준 절차 미흡, 유사 중복사업 선정 등
-복지보조금: 사회보장급여,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등의 부정수급
2)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3) 신고자 보상

- 보상: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지출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최대 20억원까지 지급
-포상: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금품 등을 받아 자진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행정자치부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제한 관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차단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삭제일별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전신실 자료실 통제
-개인정보 파기시 철저히 파기

아름다운재단 정기나눔캠페인 꾸준하다 오픈

- 1%다달나눔으로 참여
-나만의 1%를 정해 매월 기부
-모금된 금액 HOPE프로젝트 사용

이 달의 법률상식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



강희선 변호사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인 경찰의 임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범인이 검거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특히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무런 처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시행하여 피해자와 가장 먼저 만나 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하고 있다.

강도 방화 등 강력사건과 체포 감금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호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복귀를 돕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이 설계한 피해자 보호활동 3STEP에 따라, ① 사건 초기의 공감 단계에서 위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며,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② 사건 진행 중의 지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현장검증, 임시숙소 인 퇴실 등과 관련, 필요한 경우 동행하여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각 지원기관 단계에 연계함으로써 경제 적 심리적 법률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③ 사건 후기의 안정 단계에서는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상적 생활 복귀를 돕고,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지속적 사후관리로 심리 회복 안정을 도모한다.

이들 위해 경찰청에 피해자 보호 담당 관실을, 전국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 보호 전담(계팀)을 신설하였고, 상당심리 사회복지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사부서 근무 경력자 등 관련분야 경력자를 중심으로 총 209명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선발하여 경찰청에 11명, 전국 지방경찰청에 57명, 치안수요가 많은 1급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141명을 배치하였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살인

자원봉사자 모집

청주시

장애인가정청소년 학습지원사업 멘토링

관리센터: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요청인원: 40명
활동기간: 02. 09 ~ 12. 31
전화번호: 043-252-9720

나눔교육서포터즈 11기 모집

관리센터: 아름다운가게
요청인원: 제한없음
활동기간: 01. 06 ~ 06. 30
전화번호: 043-221-0011

도매 봉사

관리센터: 제주해오름마을
요청인원: 10명
활동기간: 01. 01 ~ 12. 31
전화번호: 043-285-4438

충청권

이동학습지도

관리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요청인원: 3명
활동기간: 01. 01 ~ 12. 31
전화번호: 010-9419-8056

영동권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요청인원: 1명
활동기간: 01. 01 ~ 11. 30
전화번호: 043-744-9633

밀반찬서비스 배달

관리센터: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요청인원: 5명
활동기간: 01. 01 ~ 12. 31
전화번호: 043-743-150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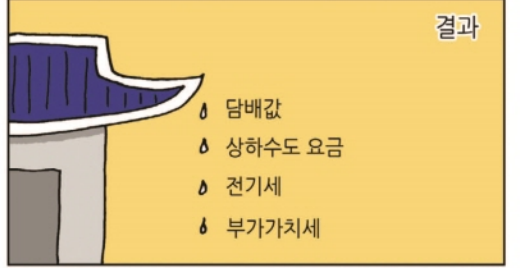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0명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복 / 지 / 만 / 평

낙수효과

이창신 www.bokmani.com



낙수물이 서민지갑을 뚫는다.

충북긴급복지지원센터

1688-0012

생활에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자원을 해드립니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원하신다면 가까운 복지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복지에 대해 궁금하신점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견
1688-0012 전화
긴급 서비스 지원

*자립률과 지원액은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충북긴급복지지원센터

Table with 4 columns: 지역 (Region), 11개 거점센터 (11 Regional Centers), 연락처 (Contact Info). Lists centers in Cheongju, Chungju, Jeonju, Boeun, Ulsan, Yeongdong, Jeongseong, Jincheon, Goseong, Eumseong, and Danyang.

2015년에도 당신의 인권을 지켜 드립니다!

사회복지인권지원원은 전화상담 및 익명게시판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받은 인권침해나 목격한 어린이를 경청하고, 대응방안 및 해결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합니다.

www.043whr.or.kr

충북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 043)239-8903

